

교협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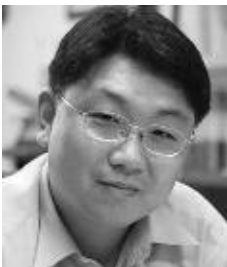
03 2018

죽전캠퍼스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천안캠퍼스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학생회관 425호 Tel. 041-550-1553

인 사 말

대학의 변화와 공진화(共進化)

조 한 승 (사무국장)



요즘 공진화(共進化)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원래 생물학 용어인데 하나의 개체가 변화 발전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개체도 필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지요.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력양성을 책임지는 대학교육도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기에 사회는 '평가'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가장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수의 강의노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수 사회는 변화에 보수적입니다. 물론 변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된 채로 미래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석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이 사회적 변화를 모르고 계시거나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교수사회의 수평적 성격이 외부의 압력에 따른 집단적 변화보다는 자율적 판단에 의한 개별적 발전을 선호하게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학의 가장 핵심 구성원인 교수님들의 참여 없이는 대학의 변화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그러한 개별적인 변화가 완성될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변화를 꾀하는 본부와 자율적 판단을 선호하는 교수님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많은 대학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대학은 큰 어려움 없이 공진화의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지난 일 년여 동안 교협에서 일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결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학사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수차례 열린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교수님들은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유익한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학교의 정책과 변화를 교원연수에서 일방적으로 통고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당국 역시 그러한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교수와 학교가 함께 노력한 결과가 지난여름 발표된 2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성적표에 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15기 교협은 소통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변화의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직도 변화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지난 1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단국대의 진정한 저력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언해주신 교수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평가에 대비하고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학교 당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5기 교수협의회는 출범 이후, 연구, 학사 및 후생복지 등 전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대학본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들께 아래 표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1. 연구분야

(1) 연구년 제도 개선

: 평가를 통한 현 제도의 개선과 첫연구년 보장 및 정원확대를 건의함.

(2) 연구비 지원 개선

: 대학연구비 지원 대상 확대와 연구장려금 산정 방안을 개선해야 함.

: 연구업적에 대한 지원폭과 적용범위를 개선해야 함.

(3) 연구지원 환경 개선

: 연구실 컴퓨터 정기 교체 및 전자저널/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 확대를 건의함.

항목	세부 건의사항	성과	반영 현황
연구년	연구년 교원 선정 시 연구업적 및 학장·학과장 평가 폐지	△	연구업적 이외에 교육업적, 학생상담 및 복무업적을 평가항목에 추가 고려
	첫 연구년 대상자 반드시 선정	○	첫 연구년 최우선 고려
	천안-죽전 캠퍼스 단일화 추진에 의해 통합된 학과의 경우, 증가된 교원 수에 비례하여 연구년 정원 확대 적용	○	약10% 한도 내에서 고려
연구비 및 연구업적	대학연구비 지원 대상 확대	○	생애 첫 연구비 100% 지급
	연구장려금 산정 방안 개선 -100점 미만 미지급/점수구간별 증가구조 폐지 -외부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실적 100% 반영 (현 50%만 반영)	△	연구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중이며 관련 건의사항도 검토할 계획임
	IF 가중치 적용된 연구업적을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 (승진/승급/재임용/대학연구비/연구년/연구장학생 선정 등)	△	현황 파악 및 일괄 적용 가능성 검토 예정
	영문논문교정료 100% 지원	△	현재 50% 지원 중
	학술대회 발표도 연구업적으로 인정	×	-
	산학협력 및 연구과제 수주실적에 따라 과제책임자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원도 연구업적 점수 인정	△	검토 중
	과제책임자의 여비 정산 기준 현실화	△	<교협 및 직원노조 통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함
	간접비 지출내역 공개	×	-
	컴퓨터/모니터 정기 교체	○	예산범위 내 임용시기 역순 교체 진행 중
연구 환경	전자저널 구독 확대	○	WILEY 저널 구독 예산 편성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 확대	○	SPSS, CAD, SAS 등 구비

○: 건의사항 반영, △ 일부 반영 또는 긍정적 검토 중, ×: 미반영, *<첨부 1> 참조

2. 학사 및 기타분야

(1) 인사조치 전달방식 개선

: 부정적인 인사조치 결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공지 및 통지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함.

(2) 수업 및 시간표 작성

: 시간표 작성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건의함.

: 대형강의, 분반, 의무개설 등의 유연화를 건의함.

(3) 강의평가와 학교 공간

: 강의평가 제도의 바람직한 활용 및 개선을 건의함.

: 학교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건의함.

(4) 후생복지 확대

: 청소업체를 통한 연구실 청소 시행을 건의함.

: 교수수첩 및 달력의 재배포를 건의함.

: 퇴직 교수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의 배려를 제안함.

항목	세부 건의사항	성과	반영 현황
인사 조치	인사조치결과는 그룹웨어에서 학장급에게만 전달 되고 오프라인으로 학과장 경유해 해당 교수에게 통지	△	현재 건의사항대로 재협의 중
수업 및 시간표 작성	시간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	△	해당 사항 인지하고 있으며 노력 중
	대형 강의 유도 및 분반 수 줄이기 지양	△	
	상경관 등 일부 강의동의 교양/학군단/교직 과목 집중배정 지양	△	교양대학 강의배정이 타대학보다 먼저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임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 마련 중
	주당 최소 4일 강좌 개설에서 3일로 완화	×	-
	1교시 의무 개설 유연화(예: 야간강좌 또는 금요 일로 대체)	○	1교시의 야간 대체 인정
강의 평가	강의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소명서/주의/경고/상 여금제한) 폐지	○	소명서 외의 불이익 없음
	강의평가 점수의 이상치 제거, 욕설 등 악의적 비 방 문구 필터링	○	해당 사항 인지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관 련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 담당부서가 자 체 검토 중
	점수 산정시 BTA 선정시 사용되는 대형 강의 가 중치 적용	△	
학교 공간 활용	학사구조개편 과정에서 강의실/연구실 공간 운영 계획 동시 고려	△	해당 사항 인지하고 있으며 검토 중
	70주년 기념역사관에 대규모 강의실 확보	×	-
후생 복지	연구실 청소	○	-3월/9월 청소 가능 -하계방학 중 왁스 작업
	교수수첩 및 달력	△	현재 탁상달력 배포
	퇴직 교수 의료지원	×	-

○: 건의사항 반영, △ 일부 반영 또는 긍정적 검토 중, ×: 미반영, *〈첨부 1〉 참조

기존 건의문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건의사항 중 천안에 비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죽전 단
국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4세 이하로 제한된 입학 연령을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위한 필요 공간 확충을 직원노조와 함께 〈첨부 2〉와 같이 건의 하였습니

다. 또한, 금년도에는 여비 정산 기준 현실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첨부 1>와 같이 직급과 보직 관련 차별을 폐지한 교협 및 직원노조 단일안을 합의하여 건의한 상태이며, 현재 본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기 교수협의회에서는 지난 기간 동안 교수님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고 대학본부와 소통하면서 보다 많은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반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대다수 교수님들께서 만족하실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건의 과정을 거치며 그동안 쌓여왔던 교수와 학교 간 불신과 불만의 대부분은 상호 소통과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5기 교수협의회 건의 프로젝트는 임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과 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진솔하게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교수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첨부 1> 대학 여비정산기준 현실화에 대한 교협 및 노조 통합(안)

(1) 국내 여비

구 분			교통	숙박비	일비	식비
현행	교협초안	교협-노조통합안				
교무위원	교원, 직원 (정규직)	교원, 직원 (정규직)	철도(특실)	100,000	25,000	15,000
교직원	교원, 직원 (비정규직)	교원, 직원 (비정규직)	철도(보통)	70,000	20,000	10,000

* 교통편 이용(자가용 추가): 타대학처럼 연료비(10km당 휘발유 1리터 계상), 주차비, 통행료를 실비로 지급함

* '정규직'은 정년트랙, '비정규직'은 비정년트랙, 기타 등을 포함함

(2) 국외 여비

항공운임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숙박비, 일비 및 식비는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등 급	숙 박 비	일 비	식 비
현행	교협초안	교협-노조통합안				
총 장 부 총 장	좌동	좌동	가	실비(상한액 : 471)	60	186
			나	실비(상한액 : 422)	60	136
			다	실비(상한액 : 233)	60	102
			라	실비(상한액 : 200)	60	85
교무위원	폐지	교원, 직원 (정규직)	가	실비(상한액 : 389)	50	160
			나	실비(상한액 : 289)	50	117
			다	실비(상한액 : 185)	50	87
			라	실비(상한액 : 149)	50	73
교수, 부교수 3급 이상 직원	교원, 직원 (정규직)	폐지	가	실비(상한액 : 282)	40	133
			나	실비(상한액 : 207)	40	99
			다	실비(상한액 : 139)	40	72
			라	실비(상한액 : 100)	40	61
조교수 이하 4급 이하 직원	교원, 직원 (비정규직)	교원, 직원 (비정규직)	가	실비(상한액 : 223)	35	107
			나	실비(상한액 : 160)	35	75
			다	실비(상한액 : 112)	35	58
			라	실비(상한액 : 79)	35	49

<첨부 2> 죽전 단국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교협 및 노조 통합(안)

직장 어린이집은 다른 보육기관보다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편안한 정서와 안락한 환경 제공이 부모의 교육/연구 및 업무효율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 '단국어린이집 학부모협의회' 의견을 종합하여 어린이집 대상연령 확대 및 아이들의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현 문제점

가. 영유아의 한정된 연령대 모집

- 1)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4세 이하로 제한된 영유아 13명이 각 보육실에 2개의 반이 통합반으로 운영중
- 2) 나무반은 법정나이 0세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통합반으로, 걷지 못하는 아이와 걸거나 뛰는 아이들이 보육실 생활을 함께함으로써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 3) 하늘반은 법정나이 1~2세가 함께 생활하여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이 미흡함
- 4) 5세 이상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부재로 교외 사설 보육 시설로 전원 (轉園) 되고 있음
- 5) 단국대 교직원 수 대비 부족한 영유아 수용 인원

나. 필수 공간 부재

- 1) 양호실 : 유아 안전법에서 권고하는 독립적인 유아 양호실 부재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분리 및 대처가 불가능함
- 2) 유희실 포복실 :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대근육 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우천, 동절기, 미세먼지 수치 나쁨으로 인한 실외활동 제한 시 대체할 공간이 없음.
- 3) 교사 휴게실 : 개정된 근로 노동법으로 인하여 8시간 이상 근무자의 1시간 휴식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휴게실이 필요하나, 현재는 해당 공간이 없어 교외로 교사들이 외출하는 상황. 또한 외출 및 복귀 시 준비 과정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으며 교사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4) 교사실 : 교육 프로그램 준비, 영유아 관찰 공유 및 토의, 정보교환 등 정상적인 교육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교사실 부재

다. 기타

- 1) 어린이집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차량 진출입 시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위험이 있음.

2. 해결방안

가. 한정된 영유아 연령대 문제 해결

- 1) 필요 공간 확보 및 공간 확충을 통해 총 수용인원 증대
- 2) 수용인원의 증대를 통해 현재 원아모집의 한정된 연령 문제 해결 가능
- 3) 다양한 연령대 수용으로 인하여 누리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

나. 필수공간 부재 문제 해결

- 1) 1안 : 현 단국어린이집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 2) 2안 : 교내 별도의 건물 또는 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 확보

다. 기타 : 어린이집 진출입로 확장 및 도로반사경 추가설치

저는 이번학기부터 단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신동윤입니다. 신입교수로 오게 된 지 이제 막 두 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임용되기 전부터 타 학교에서 꾸준히 수업을 해왔던 터라 학교생활이 낯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임용 후 임하는 수업은 생각과 달리 시작부터 많이 긴장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과의 만남이 일회적이지 않을 것이고, 길게는 5년간(건축학과)을 함께 부대끼고 또 지도해야 할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나 봅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 강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설레는 감정과 긴장되는 감정이 묘하게 교차하며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듯 긴장이 풀리곤 합니다. 돌이켜 보면, 유학시절 처음 강의에 임했던, 긴장되면서도 어설프지만 열정적이었던 그때의 감정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겨우 학생들 이름을 하나, 둘 외워가고 운이 좋게도 학부 연구생 3명과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또 졸업을 앞둔 5학년 학생들과는 마지막 설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일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학과 일에는 소극적인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과는 아직 제대로 된 인사도, 식사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비록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교실 밖에서도 스스럼없이 저를 대하고 가끔 제 방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학생들을 보면 나도 이제 이 학교의 일원이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학과 교수님들께 드리면 “좋은 때지.”라며 자신들도 신입교수라고 학생들이 찾아오던 때가 생각난다고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과 교수님들 외에는 아직 학교에 아는 교수님이 없습니다. 연수 때 만난 동기 교수님들, 그리고 총장님 얼굴을 겨우 익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 교수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면 가능한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수법 특강이나 점심 특강과 같은 자리는 강의는 내용도 좋았지만 다른 학과의 여러 교수님들을 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밥먹을 때면 늘 고민입니다. 수업 끝나면 학생들과 먹을 때도 있고 점심시간에 여유가 없으면 거르기도 합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유학시절 어디를 가든지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늘 챙겨 함께 다녔습니다. 크고 작은 교내 행사 때마다 저는 늘 가족을 동반하였고, 낯선 나라에서 아이 둘을 낳고 기르느라 정신없는 아

내도 사람들과 만나 북적대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의 최근 2년 동안은 공식적인 자리에 가족을 데려간 적이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행사 때 가족들을 일부러 부르지도 않았으며 가족과 동행하기엔 왠지 부담스럽고 모임에 실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교협 춘계등반대회를 맞이해서는 이은재회장님이 먼저 전화를 주셔서 교수협의회를 소개 해주시면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가족과의 체험공방 프로그램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선뜻 가족들과 동행을 권유해 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등반대회는 그런 점에서 일찌감치 참석을 마음먹었고, 자신 있게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교협 춘계등반대회는 안성의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스위스에 살면서도 산악기차는 많이 타봤지만 막상 걸어서 산행을 해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산행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행을 하기로 했었고 아이들과 아내는 체험공방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금 늦게 도착한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총장님의 말씀이 끝났고,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산행이 시작 되었던 거 같습니다.

비봉산성을 따라 장수바위까지 돌아오는 등반 코스는 저 같은 초보에게도 무리없이 완주가 가능한 평이한 산행길 이었던거 같습니다. 사실 등반대회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저는 자칫 산행이 지루하고 어색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지만 그런 생각은 기우였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없이 대화를 열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타 학과 여러 교수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교수로서 부담 없이 인사를 드리는 자리도 되었던 거 같습니다. 특히 천안캠퍼스의 교수님들도 같이 만나 뵐 수 있어서 단국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갈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행에서 돌아오니 아내와 두 아들은 가족공예를 마치고 이어서 향초공예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들은 체험공방에서 만든 작품들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직 한글도 모르는 둘째는 자기가 싸인한 돌이 들어간 향초라며 향기를 맡아보라며 내밀었고, 첫째는 무지개 향초를 만들었다며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목에는 가족공예에서 만든 가족지갑이 하나씩 걸려 있었고 다들 자기가 직접 만든 지갑이라고 뿌듯해 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니 개성 넘치는 문양과 글, 색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특히 삼각형으로 생긴 지갑은 지폐를 접어 넣으면 필요할 때 한 장씩 꺼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디자인의 지갑이었습니다. 산행이 어려운 교수님들과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체험공방과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다른 만남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산행 후의 회식은 너무나도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메뉴 하나까지 미리 조율해서 짜인 한상 차림을 그냥 먹기만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식사 후 이어지는 경품추첨에서는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협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상품들이 단지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첨될 수 있을 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산행을 통한 이러한 만남이 단순히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아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며, 학교의 일원이 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교수님들 사이에 오고 가는 발전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매우 좋은 행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임교수 인사를 위해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 제 모습을 두 아들이 뿌듯해 하며 환호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경품에 당첨되어 자랑스러우면서도 막상 앞에 나가서 소감 말하기는 쑥스러웠던 첫째 아들의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에게 멋진 추억이 될 수 있었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교협 여러분,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고 큰 도움을 준 조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협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여 교수님들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교직원 공제회비 공제 : 매월 기본급의 3%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

2. 경조비 지급 기준

- 공통사항 : 경조비 및 경조용품 지급은 **회원가입이 만1년 이상 된 회원**에 한합니다.
- 본교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회갑 전에 정년퇴직 시 퇴직 위로금 외에 본인 및 배우자(생존시)의 회갑 축하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해 택 범 위	금 액	구 비 서 류
결 혼	본 인	50만원	청첩장
	자 녀	30만원	
회 갑	본 인	20만원	없음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20만원	주민등본, 호적등본
사망조의금	본 인	200만원	부서장 명의의 부고장 또는 사망자의 제적된 호적등본
	배우자	100만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50만원	
	자 녀	40만원	
상조용품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지급수량 : 1박스(300인분 기준) - 식탁보 외 11종	

3. 융자 대여 신청

융 자 금 액	이 율	상 환 기 간	상 환 방 법
200만원까지/5년 미만 재직	별도로 정한다	1년,2년,3년,4년,5년 중 선택	원리금은 매월 봉급에서 상환
500만원까지/10년 미만 재직			
1000만원까지/10년 이상 재직			

4.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 (2009년 9월 1일 개정)

근 무 년 수	퇴직위로금 지급률(%)
2년 이상-10년 미만	총 납부금액
10년 이상-15년 미만	총 납부금액 110%
15년 이상-20년 미만	총 납부금액 115%
20년 이상-25년 미만	총 납부금액 120%
25년 이상-30년 미만	총 납부금액 130%
35년 이상	총 납부금액 140%

※ 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이 총 납부금액보다 적을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0% 지급한다. (유예기간)

1. 2015, 2016, 2017학년도에 퇴직하는 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015. 2월 급여 기준 적용) 단, 퇴직위로금의 지급한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① 2015학년도 : 퇴직위로금이 총 납부 금액의 180%이상일 경우 180% 지급
- ② 2016학년도 : 퇴직위로금이 총 납부 금액의 165%이상일 경우 165% 지급
- ③ 2017학년도 : 퇴직위로금이 총 납부 금액의 150%이상일 경우 150% 지급
- ④ 유예기간동안 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이 총 납부금액보다 적을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0% 지급한다.

5. 신청 및 문의처 : 죽전캠퍼스 총무인사팀 박주동 (구내전화:2112)

* 5차

1. 일시 : 2018년 3월 16일(금) 16:00
2. 장소 : 죽전캠퍼스 범정관 대회의실(505호)
3. 참석현황 : 총 16명 (죽전캠퍼스 12명, 천안캠퍼스 4명 : 위임하신 운영위원수 제외)



4. 주요 이슈 및 민원

- 외국인 (중국) 학생 관리 문제 (건의사항 반영 중, △)
(특정 학과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 수업진행이 어려움)
- 수강신청 정정 기간 문제 (건의사항 반영 완료, ○)
(개강일이 금요일일 경우, 다음주 금요일 자정까지 수강정정이 가능할 경우 금요일 과목은 2주 동안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 발생)
- 성적처리 기간 연장 문제 (건의사항 반영 완료, ○)
(보강 일정을 감안하면 성적처리 기간이 1주일이 채 안되므로 성적 입력 기간 5일간 연장 필요성 제기)

* 6차 (워크숍)

1.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16:00
2. 장소 : 죽전캠퍼스 범정관 대회의실(505호)
3. 참석현황 : 총 15명 (죽전캠퍼스 12명, 천안캠퍼스 3명 : 위임하신 운영위원수 제외)



4. 주요 이슈 및 민원

- 성적 처리 기간 중 정상근무 요구에 관한 건 (건의사항 반영 완료, ○)
(성적 처리 기간 중 단축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교수님들께서 학사팀에 성적 처리 관련 문의를 제때에 하기 어려워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 성적 처리 기간 중 정상근무를 요구함)
- 차기 교협 회장 및 간사 각 단과대학별 운영위원 선출 방식을 전자 투표로 의결
- 여비 단일안 의결 및 추후 노조와의 여비 통합 협상에 대한 전권 위임 결의

1. 일 시 : 2018년 4월 28일 (토)

2. 장 소 :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

3. 내 용 : 등반코스와 동반 자녀들을 위한 체험학습(향초 공방, 가족 공방)으로 나누어서 진행

* 산행과 문화행사와 더불어 신임교수님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총 52분의 교수님 및 가족 분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셔서 산길을 걸으며 건강, 가족, 학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참여하신 교수님들께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며 점심식사로 는 삼겹살 파티 후 경품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장님을 비롯한 본부의 실처장님들과 교협의 전임 회장님들께서 대거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그간의 교수협의회 역할과 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수협의회가 학교의 발전, 특히 학내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교협등반대회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후원해주신 이사장님, 총장님, 고문님 외 교수님들께서 격려금 및 기부물품을 주셨고, 기업후원은 AK그룹 채동석 부회장, 몽고식품 김현승 대표, 동서식품 등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 동 신규 임용 전임교원에 대한 축전 발송

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2. 내 용 : 2018년 2학기 총 2명 (죽전캠퍼스 0명, 천안캠퍼스 2명)

활 동 생애 첫 신임보직발령교수 화분 및 명패발송

교수협의회 사무국

김용만 (스포츠과학대학 학장)
이정휘 (대학원 교학처 처장)
이우걸 (학생처 처장)
백형희 (융합기술대학 학장)
한원정 (치과대학 학장)

김장묵 (보건과학대학 학장)
김현수 (문과대학 학장)
윤승준 (교양교육대학 학장)
박덕규 (예술대학 학장)
허승욱 (정책경영대학원 원장)



활 동 1학기 정년퇴임교원에 대한 화환 증정

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8년 8월 30일 (목) 11:00
2. 장 소 :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콘서트홀 .
3. 퇴직교수 : 총 11명 (화환 증정)

김경환 교수 (음악대학 기악과)
신동령 교수 (상경대학 경영학부)
정계문 교수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항필홍 교수 (문과대학)
배동훈 교수 (융합기술대학 식품공학과)
편무진 교수 (외국어대학 일본어과)

김희서 교수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임성규 교수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정 형 교수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박충학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이민섭 교수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활 동**대학회원 동아리 및 운영위원 우수 활동 지원****교수협의회 사무국**

1. 대학회원 동아리 활동 지원

- * 교수테니스회 활동 지원 (2018년 3월) 교직원 테니스 대회

2. 여교수협의회 활동 지원 (2018년 1학기)

활 동**단국대학교 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8년 5월 3일(목) 16:30 -

2. 장 소 : 죽전캠퍼스 학생극장 (혜당관 212호)

3. 내 용 : 축하 화분 전달 및 회장 격려사

**활 동****스승의 날 기념 교수협의회 기념품 증정****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8년 5월 15-31일까지 각 학과 조교 및 직원들을 통하여 배포

2. 내 용 : 교협에서 준비한 보조배터리를 스승의 날 감사선물로 전달

- * 이사장님, 총장님 감촉인사, 설립자 故조희재 여사 유족대표(이용우 전 총장님) 감촉인사

활 동**죽전 교직원 식당 품질개선****교수협의회 사무국**

지난 3월 죽전과 천안 캠퍼스 교직원 식당 식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죽전 교직원 식당 반찬의 질이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학교 당국과 식당 관계자에게 시정 요청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 받음.

1. 메뉴 개선 : 정식메뉴 메뉴보강 및 가공품 사용 지양
2. 맛 개선 : 본사 선임 조리사 지원으로 셰프데이 운영
3. 고객만족도 조사 방법 변경 :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방법 시행
4. 운영 홍보 활성화 : 교수님들 이용률이 높은 중식시간에 신메뉴 제공 및 안내문 부착
5. 교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커피서비스 공간 개선

- * 학기 중 프리미엄 원두커피 셀프서비스 시행 (오전 11:30 ~ 오후 13:00)

- * 장 소 - 죽전캠퍼스 : 교직원룸 (대학원동 7층 703호)
- 천안캠퍼스 : 교직원휴게실 (학생회관 4층 408호)

활 동**천안 교직원 퇴근버스 운행 일정 조정****교수협의회 사무국**

- 노조와 공동으로 방학 중 교직원 퇴근버스 운행 일정 중재 및 합리적 조정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요 시 병원 측 퇴근버스 증차)

* 죽전캠퍼스

1. 일 시 : 2018년 4월18일(중간고사), 2018년 6월 18일(기말고사)
2. 장 소 : 해당관 앞(헌혈버스 앞)에서 진행
3. 내 용 : 햄버거 및 콜라 학생들에게 증정

* 천안캠퍼스

1. 일 시 : 2018년 4월18일(중간고사), 2018년 6월 18일(기말고사)
2. 장 소 : 울곡기념도서관 앞에서 진행
3. 내 용 : 햄버거 및 콜라 학생들에게 증정



* 총 28명

윤용수 교수(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모친상)
 김호동 교수(공과대학 파이버시스템공학과, 빙모상)
 송일한 교수(의과대학 의학과, 모친상)
 송동수 교수(법과대학 법학과, 빙부상)
 이호선 교수(상경대학 경영학과, 부친상)
 피재호 교수(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빙부상)
 김애경 교수(간호대학 간호학과, 시모상)
 강부식 교수(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빙부상)
 이승기 교수(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모친상)
 김애랑 교수(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부친상)
 김혁수 교수(예술디자인대학 도예과, 모친상)
 김중완 교수(의과대학 의학과, 빙모상)
 이장택 교수(사회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 빙부상)
 정계문 교수(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빙부상)

윤인애 교수(교육대학원, 시모상)
 오승훈 교수(의과대학 의예과, 빙모상)
 송병구 교수(외국어대학 몽골학과, 모친상)
 장석암 교수(대학원 운동의과학과, 부친상)
 강현석 교수(외국어대학 영어과, 모친상)
 함영준 교수(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빙부상)
 손연아 교수(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시부상)
 서미아 교수(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모친상)
 김만복 교수(의과대학 의예과, 본인상)
 김승희 교수(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모친상)
 이승하 교수(의과대학 의예과, 빙부상)
 안상미 교수(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시부상)
 윤석현 교수(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빙모상)
 유문집 교수(의과대학 의학과, 모친상)

명 단

제15기 교수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

교수협의회 사무국

[임 원]

구 분	소속 대학 / 전공		성 명	연 락 처		연 구 실
				Office	e-mail (@dankook.ac.kr)	
회 장	상경대학	무역학과	이 은 재	3400	ittle	상경관 619
부회장	상경대학((여교협)	경영학부	장 윤 희	3205	yhchang	상경관 320-1
	생명자원과학대학	녹지조경학과	신 지 훈	3634	sjihoon	생자대 318
사무국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 한 승	3318	hanscho	사회과학관 408
지회 사무국장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임 수 경	3775	totorolsk	상경관 618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김 정 윤	3423	jeongyunkim	자연과학2관 809
감 사	상경대학	경영학부	김 태 환	3441	thkim	상경관 516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박 희 철	3418	hpak	자연과학1관 306-2

[운영위원 - 죽전캠퍼스]

구 분	소속 대학 / 전공		성 명	연 락 처		연 구 실
				Office	e-mail (@dankook.ac.kr)	
운영위원 (죽전)	문과대학	철학과	황 종 원	3976	12130584	인문관 514
		사학과	전 덕 재	3038	dj8794	인문관 610
	예술디자인대학	도예과	김 병 울	3095	yeoul4740@hanmail.net	미술관 305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정 훈 동	3106	finvox3@naver.com	미술관 317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최 수 한	3243	suhanc	국제관 601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 진 호	3010	erickim	사회과학관 406
		상담학과	유 현 실	3819	hsyoo	사범관 608
	법과대학	법학과	김 범 준	3274	12082445	법학관 431
		법학과	홍 강 훈	3974	haansin	법학관 436
	상경대학	경제학과	서 문 석	3384	seoms85	상경관 620
		경영학부	이 기 광	3421	kiklee	상경관 520
		경영학부	김 상 현	3427	kimsh	상경관 603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장 우 영	3620	wyjang	제3공학관 512
		화학공학과	윤 용 수	3539	chemyoon	제3공학관 212
		토목환경공학과	김 두 일	3610	dikim21	제1공학관 216
	건축대학	건축학과	홍 경 구	3723	hongkg	국제관 422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이 은 주	3818	slplee	사범관 509
		과학교육과	노 지 현	3842	jihyun2	자연과학관 125
		한문교육과	김 우 정	3793	rtoran	체육관 107
	대학원(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이 영 희	3823	yhlee2014	인문관 522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임 수 경	3775	totorolsk	상경관 618
	음악대학	기악과	백 희 진	3892	hjp523	음악관 226
		기악과	조 지 현	3903	jihyuncho	음악관 431
	상경대학	경영학부	장 윤 희	3205	yhchang	상경관 320-1

[운영위원 -천안캠퍼스]

구 분	소속 대학 / 전공		성 명	연 락 처		연 구 실
				Office	e-mail (@dankook.ac.kr)	
운영위원 (천안)	외국어대학	독일어과	정 원 석	3152	12081352	인문관 505
		프랑스어과	김 현 주	3163	hyeonzoo	인문관 313
	공공인재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이 표 규	3336	12130463	산학협력관 102
		사회복지학과	정 창 룰	3244	12110561	사회과학관 328
		경영학과(야)	한 종 수	3376	joshahn	사회과학관 104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김 영 호	3442	yhkim	제1과학관 402
		물리학과	김 정 윤	3423	jeongyunkim	자연과학대 809
	융합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문 태 호	3534	taehom	자연과학대 105-03
		식품공학과	이 형 재	3561	lee252	융합기술대 504
		에너지공학과	김 우 병	3681	woo7838	제2과학관 204
	생명자원과학대학	환경원예학과	신 영 재	3648	ys234	생자대 505
		녹지조경학과	신 지 훈	3634	sjihoon	생자대 318
	예술대학	예술학부	정 치 영	3721	chired	예술A동 112
		예술학부	박 종 미	3761	artmio	예술C동 204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과	이 석 준	3842	sjlee8789	학생회관 424
	간호대학(보건대학)	간호학과	김 종 경	3893	jongkimk	의학관 237
	약학대학	약학과	김 광 미	1436	booksto	약학대 327
	교양교육대학	교양학과	조 상 우	1569	casskiss	외국어대학 227
	의과대학	의학과	조 경 진	3945	perfectcure	의학관 208-01
		의학과	유 동 수	3958	radys	의학관 508
		의학과	민 준 원	3927	12010624	의학관 214-1
	치과대학	치 의학과	조 자 원	1955	priscus	치 의학관 504
		치 의학과	이 상 민	1986	leesm0624	치 의학관 412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장 영 주	1936	yjjang	약학대 502

연 락 처 제15기 교수협의회 사무국

교수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 조한승 교수 (죽전캠퍼스: hanscho@dankook.ac.kr), (031)8005-3318, 010-6348-4610)

죽전조교 : 이근주 조교 (죽전캠퍼스: 12170313@dankook.ac.kr), (031)8005-2894, 010-8707-0797

천안조교 : 장재석 조교 (천안캠퍼스: 12170986@dankook.ac.kr), (041)550-1553, 010-4342-0990

교협브리프는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작성·배포되고 있습니다. 학내 소통의 공간 형성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교수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메일 혹은 방문 환영합니다
e-mail : prof@dankook.ac.kr 익명/기명 원고를 작성하여 본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협로고디자인-강혜경(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제15기 교수협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협브리프15-3 발행일2018년9월7일 발행-이은재, 인쇄-조한승, 편집-임수경, 디자인-정훈동, 행정-이근주·장재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